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창건 70돐 경축 열병식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창건 70돐 경축 열병식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황병서동지, 박영식동지, 리영길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 열병부대 지휘관들이 함께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10월의 경축광장에 높이 모시고 우리 당과 조국력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질 성대한 열병식을 진행한데 이어 오늘은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으로 하여 열병식참가자들의 가슴가슴은 무한한 감격과 환희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었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활영장에 나오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창건 70돐 경축 열병식 참가자들을 대표하여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장병들이 향기그득한 꽃다발을 삼가 드리었다.

전체 열병식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주체의 당, 조선로동당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끄시어 우리 조국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으로 빛을 뿌리는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청년대강국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리쳐올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영광의 환호를 올리는 참가자들에게 답례

하시며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창건 70돐을 맞으며 진행된 력사적인 열병식을 통하여 당의 령도밑에 억척같이 다져온 선군조선의 무진막강한 위력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한 전체 열병식참가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었다.

참가자들은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병군술, 무비의 담력으로 우리 혁명무력을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수행에 끝없이 충실한 믿음직한 척후대, 억척의 지지점으로 강화발전시키시어 주체적당군건설위업의 최전성기를 열어 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의 마음을 안고 세계력사에

류레가 없는 가장 성대하고 특색있는 우리 식의 열병식을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진행함으로써 당의 령도밑에 최정예혁명강군으로 자라난 인민군대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세계앞에 다시금 똑똑히 보여준 참가자들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가 터져올라 10월의 푸른 하늘가에 메아리쳤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격정에 겨워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손을 저어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총대를 앞세우고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백성을 아로새겨온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불패의 위용을 힘있게 시위한 열병식 참가자들이 로동당의 붉은 기발을 제일군기로 높이 들고 조국보위, 혁명보위, 인민보위를 위한 성스러운 길에서 힘있는 선봉대, 돌격대로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전체 열병식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심장깊이 새겨안고 당중앙위원회와 금수산태양군전을 목숨으로 사수하는 수령결사옹위의 제일전위대,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세계를 놀라우는 영웅적선화의 창조자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감으로써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었다.

본사정치보도반

조선로동당의 최고령도자이시며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삼가 올립니다

백두산대국의 억센 기상이 온 누리에 힘있게 떨쳐지고 위대한 당에 드리는 천만민민의 신뢰심이 뜨겁게 분출된 조선로동당 창건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는 영광과 특전을 지닌 우리 해외동포족하단, 대표단 전체 성원들은 크나큰 격정과 환희에 넘쳐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이 편지를 올립니다.

세계가 우리더 칭송하는 백두의 천출위업을 영광의 대추전장에 높이 모신 궁지와 환희가 강산에 차넘치고 승리의 피성이 하늘따를 진감하는 경축행사에 자랑찬 로력적신물을 안고 달려온 조국인민들과 함께 시고 보니 김일성민족된 궁지와 자부심이 백배, 천배로 더해져 솟구치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사랑과 믿음, 충정과 보답의 최절정임을 이룬 경축행사의 높은 연단에서 명도자는 인민에게 허리숙여 인사드리고 인민은 원수님 우러러 감격에 겨워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를 목청껏 웨치는 진경이 넘친 모습에서 저희들은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을 다시금 느끼며 눈물을 흘리었으며 그 품에 자기 운명을 맡기고 당을 따라 천리라도 만리라도 팔까지 같은 나라 천만 아들딸들의 신념과 맹세를 가슴깊이 새겨안았습니다.

조국의 가는 곳마다에서 보면 볼수록, 접하면 접할수록 절절하게 느끼게 되는것은 사랑과 믿음으로 키워주고 내세워주는 위대한 품이 있고 충정과 애국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심단결된 천만민군이 있으며 그 어떤 힘의 무리도 당에 기를

키어놓고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나라가 바로 강대한 내 조국, 세상에 소리가 자랑할 우리 조국이라는것입니다.

훌륭한 자식뒤에는 그들 키운 훌륭한 어머니가 있기마련이듯이 형언할수 없는 력사의 온갖 도전과 난관을 파김치 물리치고 우리 조국이 오늘과 같이 세계정상에 우뚝 올라설수 있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함으로 존엄높고 백전백승하는 당, 수령님들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현실로 꽃피워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위대한 조선로동당이 있었기에 안아올수 있는 빛나는 결실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어머니당의 따사로운 품이 있어 지난날 나사지한 고향은 있어도 보살펴줄 자애로운 품이 없어 바람에 흩날리는 모래알처럼 이역땅에 흩어져 버림받고 멸시당하던 우리 해외동포들도 오늘은 세상이 보란듯이 가슴펴고 땀뻑하게 지역의 거리를 활보하며 살아올수 있었으며 기쁨 떠나 어려울 때나 번함없이 조국과 운명을 같이할수 있었습니다.

정녕 조선로동당이 걸어온 자랑찬 70년의 력사는 이민위원을 파우명으로 삼고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당의 본분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력사입니다.

오늘 조선로동당은 사상과 명도, 덕담에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들과 똑같은신경에 있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백전백승하는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온 세상에 빛을 뿌리고있습니다.

해외에 사는 저희들이 신문과 방송, 텔레

비존을 통해 조국소식을 접할 때마다 눈시울을 뜨겁게 적시며 궁지높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것은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며 사업과 생활을 속속들이 헤아리시며 사랑과 정을 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자하신 모습을 비울 때입니다.

더우기 저희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늘처럼 여기신 인민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상으로 새겨안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관입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넘칠대로 조국당 방방곡곡에 기념비적장조물들을 1년도 아닌 불과 몇개월동안에 최상, 최고의 수준에서 우뚝우뚝 일떠세우며 폭풍처럼 내달리는 조국의 역세고도 장한 모습에서 저희들은 사회주의무용도원에서 만복을 누리갈 우리 인민의 행복넘친 모습을 크나큰 흥분과 격정속에 그려보고 또 그려보았습니다.

저희들은 경제강국, 문명국건설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눈부신 성과들이 이루어지고 10년이 아니라 1년이면 강산이 변하게 하는 천지개벽이 일어나며 폭우와 큰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북변땅 라선시에 전회위복의 품같은 기적이 창조되는 현실을 통하여 인민적정치의 최고귀감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밑에 우리 조국은 가까운 앞날에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문명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리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계의 커다란 관심속에 전례없는 규모에서 성대히 진행된 당창건 70돐 경축행사는 명도자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쳐 비약하며 질풍같이 내달리는 조국의 무궁무

진한 힘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뚜렷한 시위였습니다.

당창건 70돐 경축광장의 높은 연단에서 저희들은 지난 8월 저희들은 온 겨레가 바라는 소중한 평화를 안아온 소식에 접하여 솟구쳐오르는 격정에 잠을 들수 없었습니다.

조선반도에 전쟁의 먹장구름이 무겁게 드리웠던 지난 8월 저희들은 온 겨레가 바라는 소중한 평화를 안아온 소식에 접하여 솟구쳐오르는 격정에 잠을 들수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경축행사에 참가하여 이 력사적사건이야말로 조선로동당이 키워온 자위적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무진막강한 군력과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무적의 천만대오가 안아온 기적중의 기적임을 다시금 새겨안고 경애하는 원수님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를 소리높이 외쳤습니다.

세계적인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위력에서 성대히 진행된 당창건 70돐 경축행사는 명도자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쳐 비약하며 자주통일의 전향적국면을 확신성

게 주도해나가는 조국의 모습은 해외에 사는 우리들에게 탁월한 명도자를 모실 때 민족의 운명도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도 굳건히 수호될수 있다는 진리를 가슴깊이 새겨주었습니다.

저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민족의 명수로 높이 모신 궁지와 자부심을 더욱 가슴깊이 간직하고 인민을 위하여 열사복 무해나갈때 대한 원수님의 호소에 발걸음을 맞추어 해외동포조직들을 주체의 애국대로 든든히 꾸리며 조국의 불성변영을 위한 애국사업에 적극 떨쳐나서겠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반동일분자들의 백골을 지지파탄시키며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겠습니다.

온 겨레와 인류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성대히 진행된 조선로동당 창건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고 사랑하는 조국을 떠나는 저희들의 간절한 소원은 오직 하나 조국과 민족의 운명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건강과 안녕뿐입니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과 영원토록 무궁번영할 백두산봉우리대강국의 양양한 미래를 위하여, 주체적해외동포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21세기의 태양이시며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창건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한 해외동포 축하단, 대표 단성원 일동

주제104(2015)년 10월 12일